

착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으세요!

21면에서 계속

니까 여러분은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행하는 것이 전부 고정되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나 잘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잘나 잘나에 한 가지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의 생활을 하는 것을 일임이 내가 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의 부처님들은 바로 '무'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내세워서 부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것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먹는 대로 컴퓨터에서 나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넣는다면 무턱대고 자기는 컴퓨터의 노예가 돼서 모든 걸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 행적이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하인이 뒤바뀐 거죠? 주인이 만들어 놓고 거꾸로 하인한테 먹혀서 도리어 하인 노릇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도리를 아셔야만이 우리가 의욕적으로 내 몸을 지킬 수 있죠. 그걸 자세히 말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면 이 몸이 법당이라고 한 뜻은 무어냐? 내 몸 안에 5여이라는 생명이 들어있는데 내 마음이 대표로서 마음 현상학을 하는 데에 따라서 정맥 동맥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소임을 맡은 그 생명체들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 뿐입니까?

우리가 이 이치를 안다면, 자기가 마음을 발견해서 그 뜻을 안다면 바로 컴퓨터나 영사기나 그런 데도 말리지 않을 것이고 바로 미사일에도 말리지 않을 것이고 미사일을 막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근본입니다. 어느 거 하나 두렵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병에도 그렇지만 내 마음을 내가 이끌어가고 갈 수 있

바람부처가 될 것이고, 가난하면 관세음보살이 돼줄 것이고, 명이 짧으면 지장보살이 돼줄 것이고, 밥에 송사가 붙었으면 판사가 돼 줄 것이고, 내가 어떠한 경찰에 연관이 돼 있으면 경찰이 돼줄 것입니다. 이렇게 참, 광대무변하고 묘법인 것을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 못하고 오히려 노예가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쪽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라고 바깥에서 구하고 바깥에서 찾고 빌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옷깃을 다시 한 번 여미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하는 시대라고 보며,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가 이 땅의 주인인지, 내가 이 몸의 주인인지를 생각해봐 울음 줄로 믿습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떠한 이름이 기독교가 아니고 이름이 불교가 아니고 이름이 가톨릭교가 아닙니다. 그 이름 따라서 바로 짝 짝 갈라지고서 마음으로 이어가지고 인과를 받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말이



그림 · 최주현

라고 이름을 지어왔을까요? 그건 숫자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팔만! 팔이면 벌써 그대로 사무(四無) 사무(四有)가 돌아가는 뜻입니다. '사천' 이면 벌써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 하면 벌써 하나를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경' 했거든. 팔십종후(八十種好)도 말씀하셨지만 '호'도 '종'이라고 했으니 '종'도 '호'도 이 말입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요거를 한번 자기 내공에 놓고, 의정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어느 조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애들이, 오늘은 큰스님네들이 오시니 오만 평에다가 씨를 뿌려서 저녁에 요리를 해서 그 큰스님네들한테 맛있는 대접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오만 평에다가 오늘 씨를 뿌려서 음식이 맛있는 요리해 낼 수 있을는지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볼 일입니다.

한마디 더 부탁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다 놓게 되면, 생활하는 사람이 다 놓게 되면 어떻게 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뛰지 않으면서도 뛰는 방법이 있고 뛰면서도 뛰지 않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번스에 가서 똥을 똥데 똥 눈 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원할 뿐입니다. 일체 생활을 하면

고 간 게 아니듯이 누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물건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간 것이고 그 돈 값어치 대로 물건을 사오지요.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 갖다 줬다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절에 와서 단돈 만원을 갖다 냈다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스님네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갖다놓는 거는 아닙니다. 자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돈 값어치 가져가기 위해서 갖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갖다놓는 것만 보았지 가져가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갖다 준 사람도 없는 것이요 받은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도리를 모르신다면 기복으로만 나가서 나중에는 생사에, 아니 선인과(善因)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선의 인을 짓는다면 그 선과를 받게 마련이니 악의 인과도 그렇지만은 선의 인과도 짓지 마라 했습니다. 일등 동물로서 태어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답마대사와 양무제가 말씀하신 그 점을 상세히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내 내공과 더불어 같이, 삼세심을 같이 들어서 내가 한생각을 하지 않고 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으로 그냥 떨어져서 헛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름 해서 주인공이라고,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을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으세요. 어떠한 건이든지 다 놓으시고 남한테 나쁜 말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공부 해라 해라 해서 더 공부를 못하게 하지 마시고, 착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일임해서 자기의 주인공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에너지와 같은 그러한 능력은, 바로 그 애한테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이 되고 집 안에 향내가 아주 그윽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조화가 돼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한

내 아상과 집착과 삼독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게 공해서 돌아갑니다

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거슬러지 않고 아래로 거슬러지 않는 반면에 즉석에서 자기 육신이 바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언어가 두 마디 세 마디도 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체가 없는 자기의 광대무변한 참자기기에 때에 따라서는 화해서 물에 가면 물부처가 돼버리고 바람이 불어서 다 죽게 되면

한데 떨어진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바로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든지 울바라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나를 믿으란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고 부처를 따르랬지 누가 믿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법당에 들어오면 법당에 들어오는 대로 저 부처님과 마음으로써 등걸러서 한데 합쳐서 인에 딱 놓고서 삼배를 올린다면 그냥 천배 올린 것보다도 나를 것입니다. 바깥으로 부처님께 '나를 구

원을 해주시오' 하고 삼천배 절을 해도 아마 한생각 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도리를 알아서 유체나 유행이나 악령이나 유전이나 또는 생사 열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세균도 그렇죠. 여러분의 중심이 없다면 빈집이니까 들어와서 모든 세포의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몸을 통해서 갖은 병 갖은 악취스런 냄새가, 거미줄도 치고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내가 옷을 벗을 때에도 벗고 싶을 때에 벗고, 입고 싶을 때에 입고 그렇게 자제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서없이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책을 읽어서 강의할 줄을 모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팔만대장경이죠. 뭐, 왜 팔만대장경이

끊으라는 게 아니라 놓으라는 겁니다 놓아서 돌리라는 것입니다

서도 벌써 앞발 떼어놓지 않았으니깐 없는 것이고 뒷발을 떼어놓는 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공해서 자기가 했던 말 하나도 할 수 없이 생겼습니다. 매사에 자기 거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글을 수만 권을 갖다가 쌓아놨다 할지라도 자기는 관리인입니다. 자기 주인의 관리인이야! 관리인이 지 자기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시주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게 갈 때에 돈 갖다 주러

가정이 조화가 돼서 화목하게 됨으로써 돈이든 뭐든 모든 게 아마도 구축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5년 4월 21일 정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석불, 목불, 동불, 소불, 전문 제작 신라불교 공예사



천수천왕목불상

금강역사석조물

신라 불교 석물의 대표작 다보탑
시공장소: 대구 동구 도동 재현사

신라인의 장인 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 011-811-7771 · 016-9211-3330 / 팩스 : 053)981-5558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18 번지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 과정: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① 맥진반 ② 사암침술반 ③ 즉효요법반
-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체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삿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 개강: 2007. 4. 11(수·목반) 토·일요일: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1개월 완성) ※ 의료시장 개장에 대비하십시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 문의 : 02)747-9136. 011-307-2975